

[종합·해설]

영산강 뱃길 복원 토론회



10일 동신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영산강 살리기 뱃길복원 대토론회'가 열려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치수관리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천 기능 회복 생태복원 사업 서남권 발전 '블루오션' 될 것"

민주당 최인기(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0일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은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생태 복원 사업"이라며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은 전남 서남해안 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동신대에서 열린 '영산강 뱃길복원 대토론회'에서 "영산강이 더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뱃길 복원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치수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 4대강 살리기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비 1조5천억원...63km 자연친화 강길 조성

운하 아닌 수질개선 통한 하천형 복원 이뤄져야

◇김희국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기획단장=현재 영산강 상류는 장성호·담양호 등 4개 농업용 저수지가 물길을 차단하면서 극심한 유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농업용 저수지 증고와 준설을 통한 하천 유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영산강 중류는 광주전 합류 후 수질급수 가 5~6등급으로 악화하고 퇴적작용으로 뱃길이 중단된 상태다. 하류 또한 하천변 농경지에서 비료·분뇨 등 오염원이 유입되면서 수질이 4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고, 퇴적에 따른 영산강 하구둑 배수불량으로 흥수에도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오니 등의 준설과 하천 내 경작금지·하구둑 개량·뱃길복원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제방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슈퍼제방축조 ▲홍수조절 능력 증대를 위한 중·소규모 댐과 저류지 건설 ▲과도한 퇴적구간 준설 ▲가뭄시 비상공급 응수할

량을 이 두 곳의 배수갑문을 통해 방류한다.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도 현 150m에서 140m로 확장해 흥수량을 조절한다.

영산강 배수갑문에 설치된 통선문식 어도가 실뱀장어·칠성장어·송어·빙어 등 소하성 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류가 바다와 강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폭20m, 높이 3m, 길이 1.28km 규모의 개방형인 소하천식 어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영산강 고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해 문화재 정비와 문화유적 전승사업, 관광휴양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패키지형 문화관광사업으로 확대된다.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나주혁신도시, 광주 아시아중심문화도시, 한평나비축제 등 영산강 유역의 인접지역에 자리잡고 지역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승수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공학과)는 "지금 각 부처의 주제발표는 영산강 뱃길 복원이 아닌 운하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형 뱃길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정부의 대운하 계획은 이미 지역민이 반대하고 있고, 지역정서에 위배된다"면서 "영산강을 살리는 것이 동의하지만, 물류 뱃길인지, 하천형 뱃길 복원인지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용을 위한 보설지 등을 추진하겠다. 현재 영산강 예상 사업비는 1조5천480억원이 예상되고 물을 상반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663억원을 조기 발주할 방침이다.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같은 기 때 영산강의 유량은 초당 6.9~18.6m로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방류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하수처리 수(하루 72만t)가 하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류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광주전 합류지점 이후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수질을 대폭 개선해 광주~나주~목포간 수량이 넘너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와 마라톤코스를 개발해 녹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영산강 하구언과 나주대교간 63.9km를 자연친화형 강길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240m와 80m의 영산호·영암호 배수갑문을 480m와 410m로 확장해 영산강 흥수

알랭 궐로의 빛 축제 본다

'빛 디자인 거장'...광주시 '광엑스포' 예술총감독 영입 추진



오는 10월9일 개막하는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에서 세계적인 빛의 디자이너인 알랭 궐로(Alain Guilhot·사진)가 연출하는 화려한 빛의 축제가 펼쳐질 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광주시와 광엑스포추진기획단에 따르면 프랑스 '빛 건축' 회장을 맡고 있는 알랭 궐로씨를 '광주 빛 축제' 예술총감독으로 영입하기 위해 교섭 중이다.

알랭 궐로씨의 대리인이자 수석디자이너인 아들이 오는 17일께 광주시를 방문,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랭 궐로씨는 지난해 흥진태 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을 만나 예술총감독을 맡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랭 궐로씨는 지난 1977년 '빛 건축'을 창설, 회장을 맡고 있으며 빛의 도시 프랑스 리옹시의 1차 도시조명계획을 수립하는 등 '빛 디자인의 아버지'로 통한다.

한편, '광주세계광엑스포'는 첨단 과학

과 예술이 빛은 '빛'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주제에 따른 4대 부제로는 ▲과학의 빛 ▲첨단기술의 빛 ▲산업의 빛 ▲문화예술의 빛으로 신성장산업으로서 빛의 역할과 예술을 통해 만나는 빛의 즐거움을 보여주게 된다.

주 전시는 4대 부제를 큰 틀로 빛주제영상관, 빛우주누리관, 빛하늘도쿄관, 빛과학체험관 등 주제전시관과 참여전시관, 산업전시 컨퍼런스, 빛의 축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사는 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 주제영상관 등 9개 과밸리온이 열리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광관련 국제산업전시회와 국제회의가 열린다.

행사를 100일 앞둔 7월2일에는 '100개의 빛 100일의 희망'을 주제로 D-100일 기념행사가 열리며 10월5일에는 내외신 기자 초청 프레스데이가 열릴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전남·전북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제출

동북아 태양광 단지 등 2개 산업 4개 프로젝트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그동안 보유했던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계획서를 10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광역경제권사업 중 지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발전전략인 선도산업과 관련, 그동안 보유했던 사업계획서를 이날 제출했다.

5+2 광역경제권에서 '호남권'에 편성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시·도가 제출한 선도산업은 2개 산업 4개 프로젝트이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서남해안 해상풍력산업 하브구축 등 2개 프로젝트와, 친환경첨단부품 소재 사업으로 친환경 광기반 응집부품, 소재산업 육성 등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이 호남권은 1개 권역인 반면, 영남권은 2개 권역으로 설

정된데 대해 권역 재조정과 누락된 프로젝트의 추가 반영 등을 요구하며 선도산업 계획서 제출을 보류했다.

한편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호남권 광역자치단체가 핵심선도산업 및 선도 프로젝트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용했지만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권역 재설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수용 배경에는 지역 현안을 직접 주진해야 하는 고충이 갈려 있다며 호남권 광역자치단체가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의 조정을 이끌어 낸 것은 합리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해양기업협회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 최대한 협력"

(사)한국해양기업협회(회장 이재완 세광종합기술단 대표)는 11일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여수갑) 개최한 '여수세계박람회와 해양산업의 연계방안' 간담회에 참가한 이 회장은 "여수엑스포가 한국 해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회장은 또 "여수세계박람회에 활용

할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수시·조직위 등과 함께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견의했다.

협회 회부장인 박한호 바이오니아 대표는 "일본이 거대 조류양식단지를 조성, 해양비이오연료를 생산하려는 애심 찬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바다자원을 활용하는 연구를 계획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중심인력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수엑스포를 기점으로 연구중심기관의 여

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 이윤균 환경과학기술 대표는 "해양예측기술을 보다 활성화해 연안 및 섬주민, 그리고 어선들에게 서비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양기업협회 산하에 설치 추진 중인 해양과학기술센터가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에 여수에 유치돼 해양산업의 인큐베이터가 꾸려질 것이다"며 회원사의 여수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상반기 중에 추진할 뜻을表明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주 2박3일 패키지 (전박) 78,000원

▶ 출발일: 3월 3일 ~ 15일

제주 2박3일 패키지 379,000원
부여모로, 충남 청진 1박 패키지 479,000원
제주 3박4일 패키지 489,000원
대전 2박3일 패키지 589,000원
제주 3박4일 패키지 689,000원